

# 전남 400mm 호우 예보... 취약지 철저 대비를

전국 곳곳 침수·산사태 잇따라  
남해안·전남 동부지역에 큰 비  
둔치 주차장·하천 산책로 통제  
농경지 배수 총력·주민들 대피도

전국적으로 연일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 하차도 침수·산사태 등에 따른 인명·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전남은 큰 비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하지만 3년 전인 2020년(장마 시즌)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영산강이 범람해 광주 도심 곳곳이 수해를 입었고, 구례읍이 물에 잠기며다 곡성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철저한 방재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 400mm-시간당 80mm 예보=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새벽까지 남부·충청·제주 중심으로 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19일 오후까지 100~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전남 남해안과 동부지역은 300~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최대 80mm의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는 물론 사·도민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방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비로 광주·전남 곳곳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광주·전남은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구례 성삼재 940mm, 광주 801mm 등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전남지역 평균 강수량은 527mm로, 최근 10년 동안 장마기간 내 가장 많이 내렸던 2020년 평균 강수량 507mm를 벌써 넘어섰다.

광주 기상청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강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고립될 수 있는 곳의 출입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사망·실종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번 폭우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0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총 13명을 비롯한 34명이다. 특히 지난 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쏟아져 들어온 6만t의 물에 차량 16대가 잠긴 청주 오송 공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4구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돼 누적 사망자가 13명



비, 더 오면 안 되는데...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수해복구를 하던 마을 주민이 또다시 먹구름이 다가오자 답답한 듯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늘었다.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에서도 이날까지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는데, 사망자 중 최소 13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광주·전남, 비상 2단계-취약지 집중 점검=다행히 광주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호우경보가 발표된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침수 등 30건의 호우 피해가 집계됐다. 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호우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관련 피해 현황 및 대응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일단 비상2단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216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11개소, 하천변 산책로 188개소 출입구 등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호우특보 해제 시까지 신덕·송정·운암·죽림·우석·소촌·송정공원역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 지하차도 8개소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농경지·시설물 침수 피해가 속출했으며 피해 면적만 635ha(해남 540ha, 강진 95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배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침수지역이 상

당히 남은 상황이다. 전남에선 산사태 우려 등으로 14개 시군, 245세대 371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남해안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60mm 폭우

기록적인 장맛비가 연일 내리는 가운데 19일까지 남해안에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19일까지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전남에 100~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남해안인 완도·장흥·강진·보성·고흥·여수·순천·광양·구례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19일 새벽까지 시간당 30~60mm(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시간당 3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9일 오후부터 21일까지는 장마전선과 저기압이 다소 약해져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22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강화돼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장맛비가 예고되고 있다.

기상청은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형태의 장마전선이 남해안 지역에 정체해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많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 광주와 전남 내륙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미 핵협의그룹, 오늘 첫 회의  
대통령실 “확장억제 실행력 구축”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의 체계의 공동이행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싱턴 선언 이행 차원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한 ‘위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첫 회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한다.

우리 측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캠벨 조정관을 비롯한 미 대표단 일행은 이날 오후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NCG 운영-체계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위싱턴 선언”은 미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양국 정상 간 합의로는 처음이라며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 핵무기를 운용하고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 목소리가, 우리 발언권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NCG 회의에서는 이런 점과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그리고 급변 사태-위기 시에 정상 간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안 사항이라서 발표문은 짧을 것 같은데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깊다”며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목포 예술인들의 ‘수상한 대통령상’ ▶6면

굿모닝 예향 - 지붕 없는 무대 ‘버스킹’ ▶18·19면

KIA 이우성 “더 높은 곳에서 뛰고 싶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일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9월 광주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 제10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

9.07-11.07

비엔날레전시관 등 광주 시내 일원

### 2023 GWANGJU DESIGN BIENNALE

**본전시**  
주제전  
Main Exhibition

**TECHNOLOGY** Meet Design  
기술 디자인을 만나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다

**LIFESTYLE** Meet Design  
살을 비추는 디자인,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다

**CULTURE** Meet Design  
디자인이 함께 그려내는 K-Culture, K-Design

**BUSINESS** Meet Design  
글로벌기업의 디자인경영, 새로운 비즈니스와 창조적 만남

**Meet & Play**  
북구 아트페스티벌 연계 시민참여형 전시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Design Workshop

Designer's Workshop (르노코리아, KIA)  
모모모 :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비엔날레 in Metaverse  
“나는야, 리틀 큐레이터”

**디자인**  
스팟  
Design Spot Pavilion

Design Meet 활자활짝 인쇄·출판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  
Remember, The Third Wave  
TV, 통신 등 정보 미디어 디자인의 변화  
순수의 결합, '공예' 인연을 만나다  
공예·디자인으로 문화적 결속을 제안  
가드너와 함께하는 앙림굴 정원투어  
정원디자인과 함께 숨겨진 멋진 정원 탐방프로그램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생·생·생 : 생태를 만나다  
자연 생태와 인간 공존의 새로운 관계 제시  
국제 포스터디자인 초대전  
Design Nexus :  
호남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만남

**국제**  
학술행사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개막심포지엄 Opening Symposium  
Design Meets Value, Trend, Future  
디자인포럼 Design Forum  
디자인토크 Design Talk

**부대행사**  
Fringe Events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디자인상품 전시 판매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주관 | gidp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검색